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원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20일 화요일 (음 8월 20일) 제16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선수단의 건승 기원” 송하진 도지사는 19일 오후 4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을 방문해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을 하고 있는 280여명의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송 지사 일행과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전북현대, 30전 ‘무패’

K-리그 수원삼성전 레오나르도 동점골로 1-1 무승부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30경기 무패 행진을 이었다. 전북은 지난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수원삼성과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30라운드에서 후반 27분에 터진 레오나르도의 동점골에 힘입어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올 시즌 패가 없는 전북은 17승 13무(승점 64)로 단독 선두를 고수했다. 2위 FC서울(승점 51)과의 승점 차는 13이다. 레오나르도는 극적인 동점골로 리그 12호골로 득점부분 공동 5위에 올랐다. 수원은 선제골을 지키지 못해 최근 5경기 연속 무패에 만족했

다. 1승4무를 거뒀다. 전북은 전반 막판인 44분에 조나탄에게 실점해 전반을 0-1로 뒤지며 끝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장신 공격수 김신욱을 투입해 변화를 꾀했지만 후반 6분 조성환이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밀렸다. 자연스레 수원이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위기에서 전북이 저력이 나왔다. 0-1로 뒤진 후반 27분 프리킥 세트피스에서 레오나르도가 정확한 킥으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이로서 전북은 30경기 무패를 달성하게 됐다. /김민근 기자

도내 대학 입학금 ‘천차만별’

전국 대학 입학금 현황 분석 결과

3년간 금액 올린 서남대가 58만여원으로 가장 많아 전북대·군산대·전주교대 등 국공립은 16만8000원

더민주 전재수 의원 “명확한 근거 없이 금액 징수 불공정 교육비 부담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 폐지해야”

전북지역 대학 입학금이 제각각으로 나타난 가운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갑)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개 대학의 최근 3년간 대학별 입학금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대학들은 학생 1인당 평균 58만3,000원을 징수했다. 전국 평균 60만1,840원에 근사한 금액이다. 대학별로 입학금은 천차만별이다. 도내에서 입학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남대로 58만2,400원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 서남대는 도내 11개 대학 중 유일하

게 최근 3년간 입학금을 올린 학교다. 2014년 57만9,000원에서 2015년 58만2,000원으로 0.5% 올린데 이어 올해도 0.1% 올렸다. 이어 우석대가 57만9,000원, 원광대 57만7,000원, 예원예술대 57만5,000원, 전주대 57만원, 한일장신대 52만원, 호원대 47만원, 예수대 44만9,0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 대학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군산대와 전북대, 전주교대가 각각 16만8,000원의 입학금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 의원은 “대학들이 명확한 근거와 산정방식이 없이 입학금을 징수하고 사용처도 밝히지 않아 대학 입학금이 대학의 싹싹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올해도 대학이 천차만별로 입학금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역별 대학의 평균 입학금의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 대학 평균 입학금이 76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76만원), 울산(68만7,000), 경북(63만), 대전(59만5,000)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의 평균 입학금은 35만원(대구) 수준으로 가장 높은 지역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입학금을 많이 받는 상위 10개 대학은 100만원에 달하는 입학금과 1년 등록금을 합하면 신입생이 한 해에 납부해야 할 금액만 900만원에 달한다. 7개 대학은 입학금을 받지 않고, 10만원 미만은 8개, 10~30만원은 33개, 30~60만원은 40개, 60~90만원은 85개, 90~100만원은 27개, 100만원 이상은 1개 대학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대학 입학금이 지금처럼 짊어짐으로 천차만별로 징수되는 것은 절대로 부당하다”며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불공정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형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우리 마을엔 안돼”

익산 함열 학선마을 시에 건립 반대 촉구

익산시 함열읍의 한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련사진 4면> 19일 함열읍 학선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인근지역에 1288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이 익산시로부터 내려졌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100KW이상일 때 전북도로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내려져야 함에도 13명의 사업주들이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려 익산시로부터 허가를 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침해는 물론 조망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며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해 놓은 만큼 익산시는 주민들의 고통을 참작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뉴스

“새걸로 바꿔야겠어요”

갤럭시노트7 교환 첫날 ‘한산’

정오 기준 1800여대 교체... 퇴근 후·주말에 밀릴 듯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신제품 물량 부족 인한 혼선도

갤럭시노트7 교환 첫날인 19일 오전에만 1,800여대가 교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정오 기준 1,800여대가 교체됐다. 오전까지만 집계한 결과이고 추이는 계속 봐야 한다”며 “직장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교체 대수가 많은 등 편차가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환이 시작된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젊음의 거리에 위치한 SK텔레콤 흥대입구 점은 이진우 점장을 포함해 6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 곳은 최신 제품에 민감한 20~30대 젊은 고객층이 압도적으로 많아 갤럭시노트7 판매 성적이 좋았다. 결과적으로 갤럭시노트7 교체 주문도 많았다. 이 점장은 “지난 2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을 발표할 때 정말 믿기지 않았다”며 “지난주부터 신제품 교체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퇴근 이후와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고객들이든 직장인 고객 이든 오전에 오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다. 오늘날같은 경우 오전에 한

분만 교체를 하고 가셨다. 아마 기존 갤럭시노트7 고객들이 모두 신제품으로 교체하기까지 최소 보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지금까지 환불 요청은 3분 정도였는데 전체의 1%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상담 직원은 “제품 교환 자체는 짧게 끝나는데 고객 정보 확인, 데이터 이동 시간이 좀 걸린다”며 “고객께서 신분증 등을 미리 지참하고 오시면 더욱 빠르게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갤럭시노트7 신제품 물량이 부족해 혼선이 있었다. 한 갤럭시노트7 고객은 “신제품이 없어서 발길을 돌려야했다”며 “배터리 점검하러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가고, 신제품 교체하러 대리점 갔지만 물량이 부족해 재방문해야하니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삼성전자는 “보다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다만 물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교체 고객이 몰리는 곳이 있어서 제품이 부족한 곳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교체 대수가 예상 수치에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

▶ 매일 INDEX

2면 도내 상용근로자 임금 전국 평균 미달 4면 도내 기습기 살균제 사망자 20명 늘어 6면 8월 배추값 큰 폭으로 상승

제1회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풍경

9월 23일~24일 양일 저녁 7시 30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특설무대

출연진

23일



메인: 자전거 타는 풍경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24일



메인: 고재근(Y2K)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주최: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주관: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 문의: 063-288-9700(전주매일 문화사업국)